



## 양돈 위기극복 위해 양돈인들의 힘과 지혜 모으는 충남도협의회

▲ (사진 왼쪽부터) 충남도협의회 박원섭 과장, 장장길 도협의회장, 임동희 간사

최근 양돈산업은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FTA 시대 도래는 그동안의 개방과는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거기다 치솟고 있는 사료가격과 해결되지 않은 소모성질환은 양돈인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절망하지 않고 양돈산업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 더욱 단합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으로 FTA의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양돈협회 충남도협의회를 찾았다.

글·사진 - 오유환

충청남도는 현재 1,800여 농가가 220여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산 대주자 양돈산업의 중심축이다. 이런 충남지역 양돈산업을 이끌고 있는 양돈협회 충남도협의회는 현재 장장길 도협의회장(공주시장)을 중심으로

이규철 부회장(논산지부장), 두혁중 총무(서천지회장을 임원으로 충남 지역내 공주시부, 금산지부(지부장 고정현), 논산지부, 당진지부(지부장 남청현), 보령지부(정재홍), 부여지부(지부장 유재형), 서산태안지부(지부장 이순로), 서천지회, 아



산지부(지부장 유재덕), 연기지부(지부장 최충신), 예산지부(지부장 차창회), 천안지부(지부장 권춘석), 청양지부(지부장 정덕희), 홍성지부(지부장 한홍재) 등 14개 지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충남지역내 지부를 순회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지난달에는 충남 대전에서 정기 월례회를 갖고 충남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한·EU FTA, 양돈자조금 사업 등 대외적인 문제들과 함께 충남지역 공동현안 등을 점검하고 운영 및 양돈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등 모임을 가졌다.

### 자조금, 양돈산업을 위한 소중한 종잣돈

현재 충남도협회의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양돈 자조금 사업이다.

양돈자조금 사업은 연이은 FTA 추진, 그리고 생산성 저하 및 돈가하락 등 대내외적 산업 환경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양돈산업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는 생각.

충남도협회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만난 장장길 충남도협회의회장은 국민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지난 제2기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자조금 600원 거출비용의 인상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 상에서 충남 양돈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장 협의회회장은 "1~200원의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모인 양돈인들의 종잣돈이 어떻게 값지게 쓰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가치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생산비 이하로 돈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상황에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양돈자조금은 장



▲ 장장길 충남도협회의회장

기적인 투자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양돈자조금 거출은 우리 산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양돈인들의 의지가 결집되어 표현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조금이 현재 촉발기금을 통한 정부 보조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양돈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이상을 거출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양돈자조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한 양돈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되 당초 취지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양돈인 스스로가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면 국내 양돈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남 양돈인들의 의견이라며, 자조금 사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 장기파업 흥주미트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홍성군이 출자해 설립한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도축장인 (주)흥주미트의 파업 및 직장폐쇄 사태가



▲ 충남도협의회 월례회 모습

한 달여를 맞고 있다.

이번에 열린 충남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홍주미트 파업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규격돼지 출하를 제때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공판장 등 외지로 가서 도축을 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물류비용의 증가, 감량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양돈농가의 피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충남도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지속한 정상조업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남도협의회 소속 지부장들이 파업 현장을 찾아 더 이상의 충남지역 양돈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상조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돈농가들은 노사 양측의 합의로 조속한 조업 정상화를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

## 돼지고기 유통감시원 및 소비홍보 활동 전개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의 70%가 음식점에서 파는 돼지고기가 수입육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식당에서 수입



▲ 충남도협의회는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의 상시화로 돼지고기 유통감시와 소비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충남도내의 상근 유통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원섭 과장

육을 둔갑 판매해도 문제지만, 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해도 소비자들이 믿어주지 않는 애꿎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충남도협의회는 이처럼 음식점에서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해도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저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문제인식 아래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의 상시화로 돼지고기 유통감시와 소비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박원섭 과장이 충남도내의 상근 유통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장길 도협회회장은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유통감시 활동과 더불어 한국형 돼지고기 요리방법 개발 등으로 삼겹살 편중의 국민 식생활 개선에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최근 양돈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사업은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소모성 질환 극복 사양기술 공유



▲ 공주시부에서 시작된 요플레를 이용한 지난 3~4년간의 자돈 사양관리의 성과가 인정되어 충청남도 지원사업을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이 기술이 당진지부에 보급되었다.

무엇보다 국내 양돈산업의 위기 극복은 소모성 질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충남도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장길 협의회장은 공주시부장을 함께 역임하고 있는데, 공주시부의 사양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소모성질환 극복을 위한 자돈 요플레 급여사업이다. 공주시부에서 시작된 요플레를 이용한 지난 3~4년간의 자돈 사양관리의 성과가 인정되어 충청남도 지원 사업을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이 기술이 당진지부에 보급되어 당진지부의 전 회원들이 요플레사업에 참여하는 등 그 성과가 확산되고 있는 등 충남지역내 양돈농가들의 기술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하여 AI 정액공급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는 논산, 연기, 공주, 청양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좋은 AI 정액을 공급하고 있으나 점차 이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올해도 적극 동참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충남지역 내 소년소녀가장, 보육원, 양로원 등 각 읍·면 사회단체에 전달하는 한편, 경찰서 등을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고 돼지고기를 전달하여 양돈인의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협의회는 양돈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십시일반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웃사랑 보내기 운동 캠페인 운동 동참을 독려할 것을 밝혔다.

내년도에는 무엇보다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양돈인 등 농업인 모임을 보다 활성화하여 기술공유와 산업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극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 사양기술 공유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같은 공익을 위한 사업들도 양돈인 개인보다는 지부 그리고 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힘과 역량을 모아 실천함으로써 충남 양돈산업의 힘을 기르고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 양돈산업의 발전은 충남도협회의 자세처럼 양돈인 전체가 한마음으로 실천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양돈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인으로 국민이 믿고 선택하는 돼지고기 생산에 최선을 다한다면, 양돈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충남 양돈산업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것을 기대한다. **양동**